

불서출판 상반기 결산 '불황의 끝 보인다'

MF 관리체제 이후 교계의 각 분야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출판계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교계출판계는 지난 한해 동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금년 초반에도 그러한 영향은 계속됐다. 1주당 출간된 신간은 10권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을 정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출판계의 불황과 고질적인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경영진들은 새로운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성과도 만만치 않다.

불교출판협회가 '사찰도서관 만들기' 일환으로 도서전시회를 개최했고, 불교시대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새로운 출판시장의 활로를 개척한 것이다.

상반기동안 출간된 신간서적은 1백여권.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한 것은 번역서. 모두 30여권이 출간됐으며 독자들의 호응도 높았다. 특히 <승려와 철학자> <파란눈 스님의 한국선 수행기> <오직 모를 뿐>

신간 1백여권 '탄생'...번역서 강세

'승려와 철학자' '무문관 혹은...' 베스트불서로 어린이·청소년 불서-기획출판물 여전히 관심밖

<불교선수행의 핵심> <티베트 성자와 보낸 3일> 등은 꾸준히 읽히고 있다.

상반기동안 가장 많이 읽힌 불서는 법정스님의 <산에는 꽃이피네(소)>,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불교 선수행의 핵심>, <승려와 철학자> <거지성자> 등이다. 베스트불서는 주로 불황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거울 삼아 심신을 다독일 수 있는 청량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주종을 이뤄 사회적 상황과 독자경향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시아문에서 출간된 한글세대를 위한 선

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중국 불교 선문의 어록과 논을 정리한 <선문활요>와 중국 송대81명 선사들의 행장 법문 등을 모은 <선림승보전> 등 선종의 대표적 선서가 번역 출간된 것은 상반기의 괄목할 만한 성과다. 시인 고은씨의 <수미산>과 제인스님의 첫 소설 <엔트런스>, 그리고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는 독일 필른의 성자를 소설화한 <거지성자>도 화제의 책.

고승들의 전기와 사상을 담은 책도 속속 출간됐다.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책들도 눈길을 끌었으며, 재출간된 책

도 적지 않았다. 이들 불서들은 대부분 꾸준히 읽히는 책으로 교계출판사들이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보인다.

여시아문의 '주머니속 대장경', 운주사 '선학총서' '세계로 가는 서행후의 불경영어' 등 시리즈물과 소책자도 가세해 교계 출판 전망을 밝게 했다. 이밖에도 <황수영 전집>과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자료집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미래불교의 동량이 될 어린이 및 청소년용 불서와 20세기를 정리하는 기획출판물 등의 부재현상은 교계 출판계의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한 관계자는 "불서들이 입문서와 전문서적 등으로 양극화 되어 있다"며 "불교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 신지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서나 20세기를 정리하는 기획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불서전문서점인 여시아문 신간코너에서 불서를 고르고 있는 불자들.

지식인 대상 '심경' 해설

정병조교수가 '반야심경의 세계'

초심화 단계를 거친 불자들은 위한 <반야심경> 해설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병조교수가 펴낸 <반야심경의 세계>는 20여년전 동국역경원에서 출간된 <지혜의 완성>을 새롭게 꾸민 증보판이다. 이 책은 유일하게 전해오는 원축스님의 <반야심경> 해설서를 저본으로 해 원축스님의 눈을 통해 본 반야심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지혜의 완성>의 큰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전면 수정 보완했다. '공과 반야' '반야심경' '지혜의 완성'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출판되지 오래되어 내용과 형식이 너무 구식이어서 현대인들에 맞게 재구성했다"며 "초보자들을 위한 글이리라 보다는 어느정도 불교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가장 보편적으로 읽혀온 <반야심경>. 다른 경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이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불교연구원 판, 값 6천원>



선종의 심오한 사상 읽기

안동림씨 '벽암록' 수정 보완 펴내

중국 역대 선승들의 일화를 엮은 선종의 중문제일서 <벽암록>, 송나라 설두선사와 그의 제자 원오선사가 엮은 선문학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책이다.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고 깨우칠 수 있을 뿐이라는 선문 전통의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벽암록>은 스님들의 필독서로 꼽혀왔다. 안동림(67) 前 청주대 교수가 78편 펴냈다가 절판된 것을 수정 보완해 다시 펴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모두 100칙(則). 양 무제와 달마대사의 문답을 실은 제1칙을 비롯해 '구지의 손가락 하나' '운문의 진진삼매' '유마의 불이법문' 등이 담겨 있다. 운문선사와 조주선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벽암록>은 140여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책은 수시(垂示), 본칙(本則), 송(頌), 착어(著語), 경창(評唱)의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 석가모니부처님부터 달마-혜가-승찬 등으로 이어지는 불조의 법계승표와 인명 및 제목 색인표도 덧붙였다. <현암사 판, 값 8천원>



‘제경요집2’ ‘선법요해 외’ ‘소실지갈라경’ 나란히 출간

동국대 역경원에서 <제경요집 2> <선법요해 외> <소실지갈라경> 등 3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제경요집 2>에는 13권부터 20권까지의 <제경요집>과 <다라니잡집>으로 구성됐다. 중국 양나라때 편찬된 <다라니잡집>은 갖가지 신주를 모아 수록한 것으로 화를 막고 복을 주는 여러가지 주문과 그 사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선법요해 외>는 삼매로 불도를 닦는 요점을 해석한 선법요해를 포함해 삼매속에서 마음을 안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법관경>, 선정을 닦는 요점을 가리킨 <선요경> 등이 실려있다. 5세기 초 구마라집이 한역한 <선법요해>는 삼매에 대한 그릇된 관찰과 네가지 삼매법 등에 대해 해석하면서 '불도수행은 조용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문예춘
2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정	동쪽나라
3	거지성자	전재성	선재
4	오직 모를뿐	은석준	물병자리
5	화엄의 길 생명의 길	도법	선우도량
6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여시아문
7	길잡이는 곳에 알자가 있다	정찬주	해들누리
8	티베트에서 온...	주민환	정우사
9	가슴을 적시는...	성우·지현	민족사
10	선문활요	이철교	민족사

구입문의:(02)737-0695

<소실지갈라경>에는 8세기 중엽 당나라 수비기사가 한역한 <소실지갈라경>을 비롯 총 7개의 경전이 들어있다. 기도하는 목적과 지켜야할 일들을 설명한 12종의 상권과 기도하는 절차를 설명한 20종의 중권, 기도의 효험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설명하는 5종의 하권으로 구성됐다.

<역경원 판, 값 각권 1만5천원>

해외신간



▲연꽃 위에서 꾸는 꿈=구도를 쫓는 사람들에게 '꿈'은 무엇인가. 미국의 심리학자 세리니티 영이 펴낸 <연꽃 위에서 꾸는 꿈> (Dreaming in the Lotus: Buddhist Dream Practices and Imagery)은 불교의 교리와 수행에서 꿈의 의미와 그 본성을 파헤치고 있다. 저자는 '수행자의 꿈은 구도 과정에서 오는 근원적 욕망의 발현'이라는 대전제를 세워놓고, 인도와 티베트 고승들이 구도 과정에서 꾸었던 꿈을 근거해 '불교와 꿈'의 관계를 분석했다. Wisdom 출판사. ISBN 0861711580



▲새 천년의 윤리=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연설문을 모아 새 천년의 윤리관을 제시한 <새 천년의 윤리> (Ethics for the New Millennium)가 출간됐다. 저자 알렉산더 놀만은 달라이 라마의 말을 인용, "새 천년의 윤리는 모든 틀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자연친화적 삶의 방식이 기술 문명의 해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Riverhead 출판사. ISBN 1573220256

고침 229호 8면 '회당대종사 일대기 출간' 기사 제목중 '비로자나불'은 '비로자나불'의 오식입니다.

법화경 이야기

해경스님 엮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주의 절대진리인 일승모법이 펼쳐져 있고 영원한 생명이 펼쳐져 있는 최고의 경전 <법화경>. 다른 경전과는 달리 교상문(敎相門)과 관심문(觀心門)이 함께 갖춰진 경전으로 널리 독송되어 왔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법화경>은 28장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해경스님이 펴낸 <법화경 이야기>는 <법화삼부경> 삼십이품에 주력하면서 각품의 요점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대목들을 현대적 감각에 알맞도록 정리했다. <범우사 판, 값 7천원>

화제의 책

무학대사 연구

황인규 지음

무학대사 생애·사상 집중 분석

고려말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고자 불교계 대표로 새로운 사회건설에 뛰어든 무학대사. 신진 성리학자의 책봉송유(冊封送遊)의 사회적 상황속에서 불교를 보호한 대표적 스님이다. 신간 <무학대사연구> 역불송유의 정책속에서 불교의 맥을 바로 세우면서 선사상을 계승 발전한 무학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비롯 리말선초의 불교계의 혁신과 대응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황인규 동국대 강사가 97년 박사학위 논문 '구학자초연구'를 보완해 책으로 엮은 것이다. <해안 판, 값 1만3천원>



화제의 책

절따라 전설따라

김승호 지음

문화재로 본 사찰의 연기설화

사찰연기설화는 사찰과 사람들을 맺어 주는 인연의 고리다. 따라서 사찰연기는 희노애락을 절절히 갈무리한 담론의 총화라 할 만하다. 김승호 동국대 강사가 펴낸 신간 <절따라 전설따라>는 이대(二代)에 걸친 효행으로 건립된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 비교적 흥미롭고 서사성이 강한 36곳 사찰의 연기설화를 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연기설화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문화적 가치와 정신적 배경을 설명해 가면서 그와 관련된 연기담을 잔잔하게 들려준다. <대원정사 판, 값7천5백원>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수 출간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중환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인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정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재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 값 6000원